

《세계 지식인 지도》(산처림)는 지난해 《중앙일보》에 1년 동안 연재됐던 기획 '세계 지식인 지도'를 뼈대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해 묶은 것이다. 김민웅 재미언론인과 알렉스 캘리니코스, 이필렬 방송통신대학교수와 바이츠제커의 대담 등을 실어 더욱 다채로워졌다.

우리의 시각에서 세계의 지적 흐름 그려

이 책과의 첫 대면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 국내 지식인들이 우리의 시각으로 세계의 사상가들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것도 세분화된 분류법을 적용해 인상적이다. 지도의 첫장 '20세기에 대한 거역'을 보면 서구적 근대가 구축한 진리의 허구성을 고발하는 지식인들을 의도적으로 포진시키고 있다. 촘스키(미국)를 필두로 캘리니코스(스탈린주의), 사이드(오리엔탈리즘), 이리가레(남근중심주의), 중남미 작가들(정전)을 통해 20세기의 타자화 메커니즘과 차별의 정치학을 지식의 세계에서 추방시킨다.

21세기를 이렇게 20세기로부터의 탈출로 선언하는 이 책은 총 8장의 지도로 펼쳐냈다. 세계화, 근대성, 환경생태, 정보화 등 이른바 밀레니엄 화두들을 범례 삼아 세부도를 그려나간다. '기초에 선 모더니티'에서는 《성찰적 근대화》의 공동저자인 울리히 벡, 기든스, 래쉬 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술들을 대비시켜 근대성의 심층적 단면도를 보여준다. 한편 '21세기의 억압과 해방'에서는 인간을 고립된 원자로 만든 전문가 독점주의에서 탈주해 공동체 속의 자율적인 인간상을 모색했다. 일곱번째 지도는 땅의 형세가 무척 아름답다. 20세기를 새로운 공간의 발견으로 특징지은 지은 이들은 무의식을 깨낸 프로이트, 상대성 이론이 확장한 물질세계, 가상공간, 판타지, '마음'의 물질적 구조를 다루는 인지과학 분야에서 2세대 학자군을 대거 포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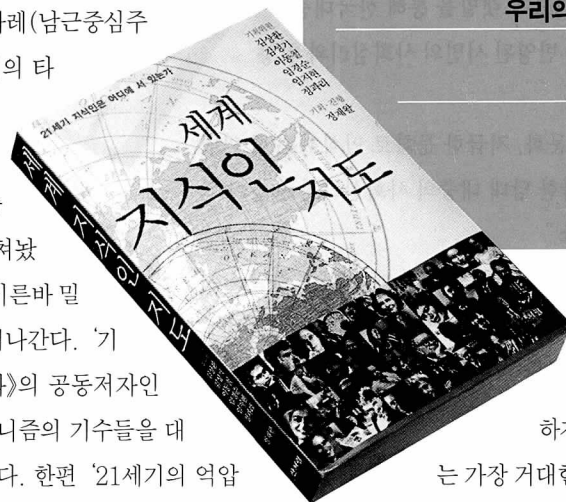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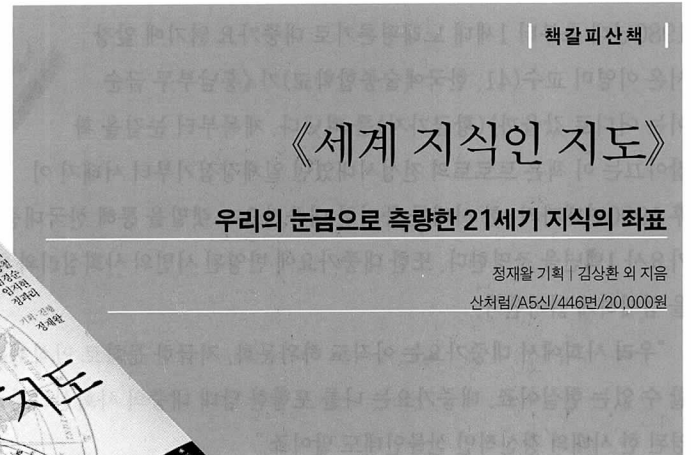
세대교체가 두드러지는 이 새로운 지식의 광활한 공간은 숨가쁘고 한편으로는 낯설어서 두렵다. 하지만 '복잡계 과학' '조형적 의지' 같은 어려운 전문용어에는 친절할 요약설명이 붙어 있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중간중간 '휴양도시'처럼 서 있는 정재왕 기자의 또 다른 해설은 학설을 둘러싼 논쟁을 요약하는 등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미국과 유럽에는 먹구름이 잔뜩 짙다. 지도 속 지식인들은 세계화와 근대성에 대한 입장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는데, 제2부 '세계화의 도전과 응전'에 소개된 프랜시스 후쿠야마,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등 세계화의 깃발을 의기양양하게 쳐든 이들은 오히려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일방적인 근대 비판은 위험해

지식인 대열에서 빠지기 쉬운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인들을 포함한 생태주의, 페미니즘 등 20세기의 주변부 시각은 당당히 '주류'로 등극했

이 책은 국내 지식인들이 우리의 시각으로 세계의 사상가들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다가온다. 세계화, 근대성, 환경생태, 정보화 등 이른바 밀레니엄 화두들을 범례 삼아 세부적인 분류법에 근거해 21세기 지식세계의 기후를 측량했다. 하지만 근대성에 대한 일방적인 단절의 태도와 아시아 학계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계 지식인 지도》

우리의 눈금으로 측량한 21세기 지식의 좌표

정재왕 기획 | 김상환 외 지음
산처림/A5신/446면/20,000원

다. 지식인 각각에 상응하는 국내 학자들의 네트워크가 결성됐다는 점도 소득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우선 세계전도에서는 가장 거대한 대륙인 아시아가 지식인 지도에서는 희미하다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 지성에 대한 국내 학계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의 예술이 네트워크와 매체의 작동방식에 따라 움직일 것이며 백남준의 전위예술, 예술가와 공학자의 만남 등을 소개한 제6부는 예술과 현실의 관계를 성급하고 추상적으로 파악했다는 의구심을 남긴다.

이 책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근대성→서구적 근대→세계화→제국주의'라는 설정은 위험해 보이는데, 목록물을 버리려다 야기까지 버리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서구의 체제철학이나 새로운 과학적 전통이 근대성의 대동맥에 칼을 들이대고 있지만, 그 칼이 근대적 학문세계에서 제련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듯한 느낌이다. 《제국》을 출간해 다시 담론의 중심에 선 안토니오 네그리나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주의를 외치는 테일러와 매킨타이어를 소개했다면, 그 반대편에서 하버마스처럼 개체의 자율적 이성을 치열하게 사유하는 독일 철학자들과 프레드릭 제임슨처럼 탈근대 담론에 비판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도 함께 다뤘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정작 21세기가 왜 탈근대의 시대가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이런 시대의 조류를 좇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존적인 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 최신판 지식 지도가 결국 바깥을 비춘 거울에 우리를 동일시하라고 권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강성민기자